

Q&A



Q1 | 예방치료를 위해 유한짓정 세 알을 4개월간 복용하던 중 임신 확인이 되어 약을 끊었습니다. 1개월여 후에 유산이 되어 주사를 맞고 다시 먹기 시작한 지 2주일 됐습니다. 약을 복용하기 시작하면 6개월 동안 끊지 말고 먹어야 한다고 하던데, 한 달 좀 넘게 약 복용을 안했기 때문에 다시 결핵이 올 수 있는 건지요? 다시 6개월 복용을 해야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A1 | 문의자와 같은 경우 최근에는 9(최소한 6)개월의 아이나(유한짓) 예방치료가 권장되고 있습니다. 아이나는 임신 중 금기약물이 아니기 때문에 임신이 되었어도 특별한 부작용이 없으면 복용 가능합니다. 현재 4개월 복용 후 1개월 중단했으므로 향후 약 5개월 정도 더 복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Q2 | 미국에 유학중인 학생입니다. 유학 중 QuantiFeron-TB-Gold 검사를 한 후 양성 나왔습니다. 미국 오기 전에 x-ray 검사에서는 정상이 나왔고요, 저는 여기 미국 사람에게 어려서 BCG 접종을 해서 결과가 양성 나올 수 있다고 이야기했지만, 제 말은 듣지 않고 계속 9개월 동안 약을 먹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한 검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2 | 대개 미국에서는 흉부 X-선 정상 소견이고 Q-검사 상 양성이면 잠복결핵

으로 진단내리고 예방치료를 하게 되는데, 투베르쿨린 반응 검사를 해서 재확인해 보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Q3 | 결핵성복막염으로 9월부터 약을 먹고 있는데요, 결핵성 복막염과 장결핵의 차이를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같은 병으로 알았는데 명칭도 다르네요. 결핵성복막염의 경우 얼마 동안 결핵약을 복용하는지요?

A3 | 결핵성 복막염은 복부 장기를 싸고 있는 복막에 결핵이 생긴 질환이고, 장결핵은 장(주로 회맹부나 상행결장) 내부에 생긴 결핵인데, 병의 위치나 심한 정도에 따라 증상도 차이가 납니다. 치료기간은 처방약제 및 병의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대개 6개월 내지 1년 정도 치료하게 됩니다.

Q4 | 시어머님께서 폐렴과 폐결핵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흉부 엑스레이와 CT를 보고 진단 받으셨고, 객담검사에서는 균이 검출되지 않았고 현재 배양검사는 진행 중입니다. 과거 25년 전에 폐결핵을 한 번 앓고 6개월 정도 약을 복용하고 완치되었다고 합니다. 폐결핵 약 복용 중이신데 집으로 오실 때는 2주 정도 지났을 때인데, 감염력은 없는지, 그밖에 공동생활에서 주의할 점은 없나요?

A4 | 균 양성 재발이나 재치료 환자는 2주 이상 지나서 균이 배출되기도 하는데, 어머님의 경우 처음부터 균음성이라면 전염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균이 나오더라도 식사, 식기, 옷, 이불, 책 등으로 옮기지는 않으며 다만 기침, 재채기, 대화 시 전염가능성은 있으므로 자주 환기를 시키는 게 좋습니다.

Q5 | 우리나라 인구의 약 3분의 1이 결핵균에 감염되어 있는 잠복결핵이라는 충격적

인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 기사대로라면, 성인 30명을 무작위로 투베르쿨린 검사를 하면 그 중 10명이 양성인 나온다는 말인지요? 그리고 만약 양성이라면, 소아들처럼 어른들도 예방적으로 9개월간 약을 먹어야 하나요?

A5 | 흉부-X선, 세균학적, 임상적으로 결핵에 감염되었으나 현증으로 나타나지 않는 상태를 잠복결핵이라 하며 투베르쿨린 반응검사 등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성인 대상의 잠복결핵 치료를 하고 있는데 향후 우리나라도 이런 추세에 따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는 소아 외에 청소년 접촉자, HIV 감염자, 당뇨병 등 질환자, 면역억제 치료자 등이 예방치료의 대상이며, 본원 및 일부 대학병원에서 일반 성인감염자에게도 예방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Q6 | 결핵이 완치가 되더라도 소수의 균들이 몸 안에 잠복해 있다가 사람의 면역성이 떨어질 때 다시 문제를 일으킨다는데, 흔히 병원에서 쓰는 '완치'라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지요? 결핵균이 사람의 면역성이 떨어질 때까지 잠복해 있는 거라면 완치라는 표현은 좀 잘못된 게 아닌가요? 면역성이 떨어졌다 하여 과거에 결핵을 앓은 경험이 있는 분들이 모두 재발하는 건 아니겠죠?

A6 | 의학적인 면에서, 특히 결핵의 경우 인체에서 최후의 균까지 다 박멸하는 의미의 완치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다만 전문의사의 적절한 처방으로 적절한 기간 동안 충분히 치료하여 실제로는 치유된 상태라는 개념의 완치입니다. 이런 경우 재발률은 거의 무시할 정도로 낮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치료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